



국내 최초 속보이는 자판기를 선보인 곳은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청통휴게소(대표이사 심광보)이다. 계기가 된 것은 작년 6월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커피자판기 위생 불량 문제를 고발되면서 부터. 이후 “이곳 휴게소 커피는 깨끗하나?”는 고객 문의가 잇따랐다.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한 휴게소 측은 이런 저런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전면을 투명하게 해 속을

들여다보이게 하는 것은 어떨까?’

아이디어는 여기까지 미쳤다. 하지만 전면을 전부 투명하게 하면 코인메카니즘까지 훤히 보여 도난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보여주지 않을 부분까지 보여 줌으로 인한 위화감 문제도 작용했다. 그래서 커피가 배합되는 믹싱볼과 배관 부위, 재료통 정도만을 보여 주는 게 적당하다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로 속을 보여 줄까?’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관련 기술이 없다보니 백방으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심혈을 기울인 끝에 커피자판기 내부에 조명과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를 자판기 전면에 부착해 자판기 내부모습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돈을 넣고 사용할 때는 내부 모습이 보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동영상이나 홍보영상이 나올 수 있게 했다.

속보이면 믿겠니?

위생당당! 속보이는 커피자판기 등장

커피자판기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신개념 ‘속보이는 커피자판기’가 등장했다. 놀랍게도 이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개발 출시한 제품이 아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의지로 기존 커피자판기를 개조하여 만들었다.

청통휴게소의 속보이는 자판기가 좋은 반응으로 보이자 기타 고속도로 휴게소로도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청통휴게소의 속보이는 자판기가 좋은 반응으로 보이자 기타 고속도로 휴게소로도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프로젝트를 꾸려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자판기도 속보이는 자판기로 바꿔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시스템의 ‘속보이는 커피자판기’는 지난 3월말부터 1대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2대는 세팅을 해 조만간 가동이 된다. 속보이는 자판기 설치되자 사람들은 사진인줄 착각을 했다고 한다. 내부의 움직임이 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 이에 휴게소 측은 재료가 빠져 나올 때는 빨간 경고등이 돌아가게 해 시각적인 효과를 강화했다. 이러자 속보이는 자판기가 다이내믹해졌다. 사람들은 이 제품을 보고 무척 신기해했다.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커피자판기 위생이나 이용 불만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 졌다. 커피자판기 매출도 올라갔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종이컵이나 원료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가 편해지는 효과도 있었다. 한마디로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항상 소수이다. 청통휴게소의 작은 도전이 커피자판기의 트렌드를 바꾸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분명 커피자판기 내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사용하고 싶은 것은 숨겨진 소비자의 심리이다. 이리니즈를 자판기 제조업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영자가 개조하는 ‘속보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의 정식 모델로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트렌드 확산을 가져 올수 있지 않을까?

청통휴게소 김동현 관리과장은 “이번 속보이는 자판기 개발로 우리 휴게소 커피자판기의 위생 상태를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보여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추된 고속도로휴게소 자판기 신뢰를 반드시

